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K-AI) 모델이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⑤

-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국가 유산 체험, LG AI연구원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SKT는 차량용 인공지능, NC AI는 생활 속 금융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경쟁력을 갖추며 다양한 현장에 접목·활용되고 있습니다.

10주간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K-AI) 모델의 활용 사례를 집중 조명합니다 : (5.11) 1차 → (5.18) 2차 → (5.26) 3차 → (6.1) 4차 → (6.8) 5차 → (6.15) 6차 → (6.22) 7차 → (6.29) 8차 → (7.6) 9차 → (7.13) 10차

① 모티프 × 국가유산진흥원 : K-AI가 국가유산 체험의 새 지평을 엽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독자 AI 모델을 접목·활용하여 국가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한 층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민 공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공 중인 국가유산 이미지 생성 서비스 ‘하이(HAI)*’에도 독자 AI모델을 탑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하이(HAI, Heritage AI) : 텍스트 입력에 기반하여 국가유산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서비스로, ‘AI for Good Global Summit’ (‘26.7월, 스위스 제네바) 공식 발표 사례로 선정

K-AI가 국가유산 체험의 새 지평을 열고, 우리 유산을 널리 알리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 국가유산진흥원 심정택 AI 데이터팀장 】

“모티프 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국가유산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AI 기반 콘텐츠와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국가유산 향유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신속하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② LG AI연구원 × 퓨리오사AI : 국산 AI반도체, K-AI로 실력을 증명합니다.

LG AI연구원과 퓨리오사AI가 손잡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고성능 AI인프라 생태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LG AI연구원 엑사원(EXAONE)의 전문성을 퓨리오사 AI의 2세대 고성능 NPU RNGD(레니게이드)로 구동하는 ‘풀스택(Full-stack) 협업’은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고유 AI인프라를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 기업들에 훌륭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2023년부터 합을 맞춰온 두 기업이 전력 효율을 개선한 국산 NPU와 자체 AI 모델의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전반에 서비스를 본격 확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NOTE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개발·확보 뿐 아니라, 국산 AI반도체와의 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K-AI모델과 국산 AI반도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일. 어려운 길이지만 신중히 걸어가겠습니다.

③ SKT × 42dot : 우리 손으로 만든 차량용 AI, 도로 위에서 달립니다.

포티투닷(42dot)은 최근 차량용 음성 AI 에이전트 ‘글레오 AI (Gleo AI)’를 공개하며, 차량 안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AI 기반 이동 경험을 선보였습니다.

SKT의 우리 AI 모델과 포티투닷이 손잡고 차량 LLM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화 AI에이전트 음성 데이터셋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차량 내 대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SK텔레콤과 포티투닷은 K-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환경에 최적화된 AI 상호작용 경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AI 모델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편리한 이동 경험을 주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4 NC AI × 신한은행 : 오프라인 은행에서도 우리 AI, 생활 속 금융 AI 시작

NC AI의 AI모델이 신한은행 금융 현장에 도입됩니다.

오프라인 금융 영업점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운영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창구 배치나 키오스크 구성 등의 변화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금융 환경 설계를 지원합니다.



* 디지털 트윈(Digital-Twin) : 현실 세계의 공간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결과의 예측·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금융 현장(영업점)을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이 우리 AI 모델 기반으로 조성된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를 폭넓게 누리며, K-AI를 활용한 기술력이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NC AI 송무경 연구원 】

“금융 현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 왔습니다. 창구 배치 하나, 대기 흐름 하나가 고객 경험을 좌우하지만, 그 최적해를 찾는 일은 늘 시간과 비용의 벽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벽을 허무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이전 시대에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나씩 데이터로 증명해 나가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AI 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판을 바꾸는 데 이바지하고, 고객이 영업점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이 나를 위해 설계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실	책임자	과 장	양기성 (044-202-6560)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우 (044-202-6566)

